

■ 괴운(槐雲) 칼럼



매화 3덕(梅花三德)과 민들레 9덕(蒲公英九德)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봄에 가장 일찍 피는 매화의 3덕과 민들레(蒲公英) 9덕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매화 3덕이다. 매화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다. 꽃을 강조하면 매화이고 열매를 강조하면 매실나무이다. 4월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매화는 다른 나무보다 일찍 꽃이 핀다. 그래서 매실나무를 꽃의 우두머리로 불리는 화교(花魁)라고도 한다. 그리고 매화 3덕이란 말이 있다. 첫째는 엄동설한을 이겨낸 인고(忍苦)의 덕이요, 둘째는 이른 봄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소식을 알려주는 덕이며, 셋째는 우리 몸에 이로운 열매를 맺어 건강에 기여하는 덕이다. 그래서인지 예부터 선인들은 매화 사람이 유별했다. 김시습은 그의 호를 매월당(梅月堂)이라 했고, 여류 문인 이계생은 자신의 호를 매창(梅窓)이라 했다. 퇴계 이황도 118수의 매화시를 남겼으며, 우리가 사용 중인 천원 권과 오만원 권 지폐에도 매화가 그려져 있다. 매화는 속기(俗氣)가 없어 고상하고, 추울 때일수록 더욱 아름다우며 격조가 높다. 그래서 한번 먹은 곧은 마음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비정신을 품은 꽃이라 하였으며, 묵화(墨畵)의 4군자(四君子)인 매란국죽(梅蘭菊竹) 가운데 매화를 으뜸으로 친다.

다음은 민들레 9덕이다. 민들레는 영거시과(菊科)에 속하는 다년생 풀로서 뿌리와 줄기는 발한(發汗), 강장(強壯)의 약제로 쓰이며, 잎은 식용으로 금잔초(金簪草), 포공영(蒲公英), 포공초(蒲公英: dandelion)라 부른다. 옛날 서당에서는 뜰에 민들레를 심어 글을 배우는 제자들에게 매일 같이 민들레를 보면서 아홉 가지 덕(德)을 교훈으로 삼도록 가르쳤다고 한다. 이것을 포공구덕(蒲公英九德)으로 불려왔다.

첫째는 인덕(仁德)이다. 민들레는 사람이 밟거나 우마차(牛馬車)가 지나다녀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 인(仁)의 덕목을 지녔다고 한다. 둘째는 강덕(剛德)이다. 민들레는 뿌리를 자르거나 캐내어 며칠을 말

려도 썩어 썩고, 호미로 난도질해도 가느다란 뿌리를 내려 굳건히 살아나는 강(剛)의 덕목을 지녔다. 셋째는 예덕(禮德)이다. 민들레는 돌아난 잎의 수만큼 꽃대가 올라와서 먼저 핀 꽃이 지고 난 뒤에 다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니 올라오는 순서를 알고 이 차례를 지켜 피어나니 예(禮)의 덕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용덕(用德)이다. 민들레는 어린 잎이나 뿌리를 먹을 수 있도록 온 몸을 다 바치는 유용한 쓰임새가 있으니 용(用)의 덕목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는 정덕(情德)이다. 민들레는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며, 꽃에는 꿀이 많아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는 정(情)의 덕목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는 자덕(慈德)이다. 민들레는 잎과 줄기를 자르면 흰 것이 흘러나와 상처를 낮게 하는 약(藥)이 된다. 즉, 사랑의 자비를 뜻하는 자(慈)의 덕목을 지니고 있다. 일곱째는 효덕(孝德)이다. 민들레는 한의학에서 포공영(蒲公英)이라고 하며, 소중환 한약제로 뿌리를 달여 부모님께 드리면 흰머리를 검게 하여 나이 든 이를 젊게 하니 효(孝)의 덕목을 지니고 있다. 여덟 번째 인술의 덕(仁術德)이다. 민들레는 자기 몸을 찢어 모든 종기에 아주 유용한 즙(汁)을 내주어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니 인(仁)의 덕목을 지니고 있다. 아홉 번째 용덕(勇德: 自立의 덕)이다. 민들레는 꽃이 피고 질 때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를 가리지 않고 떨어져 스스로 번식하고 용성(勇成)하니 자수성가(自手成家)의 의지를 보이는 용(勇)의 덕목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냥 길옆에 피어나는 하찮고 수줍어 보이는 한 포기 민들레가 이처럼 아홉 가지 덕(德)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그 깊은 뜻을 끄집어낸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오늘은 봄에 가장 일찍 피는 매화와 길옆에 피어나는 민들레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응고(凝故)의 교훈으로 삼아 배워야 하겠다.

■ 이달의 책

감자꽃 / 태사문학회

<태사문학> 제3집이 출간되었다. 권필원 태사문학회 회장은 3집부터는 태사문학의 변별성과 신선한 서정성 확보를 위해 그해의 합당한 제호로 출간한다고 밝히며 금년은 고 권태웅(1918-1951) 시인의 시의 제목인 '감자꽃'으로 제호를 정한다고 밝혔다. 김호운 문인협회 이사장은 축하사에서 현재 문중 문인들이 패배는 문예지는 경주이씨 <표암문학>과 안동권씨 <태사문학> 단 두 종에 불과하다. 이는 당대구봉군(當代九封君)으로 이름을 떨친 국제공(菊齋公) 권보(權溥) 선생과 가장 오래된 족보 <성화보(成化譜)>는 명문의 반증이며, 대학자 양촌(陽村) 권근(權近) 선생, 용비어천가를 지은 대제학 지재(止齋) 권재(權載) 선생, 임진왜란의 영웅 도원수 권율 장군, 우찬성을 지낸 충재(沖齋) 권번(權蕃) 선생 등 손꼽히는 인물들이 즐비했고, <태사문학>이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긍지를 자랑하는 천여 년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권필원 회장은 축전 문인들의 열렬한 정성으로 빛어낸 <태사문학>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가문의 자랑스러운 문예지"라고 뿌듯해 하며, 발간사에서 하나의 것발 아래 천년만년 흘러 가도록 함께 노 저어 가지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숭고한 피를 나누어 가진

자랑스러운 안동 권문의 형제로
하나의 것발 아래
천 년 전 찬란한 햇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며
드넓은 광야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중략)
자랑스러운 권문의 후예들이여
천만년을 흘러야만 할 강물이여
선조께서 놓은 드높은 등대가 기다리는 망망대해로
뗏목을 올리고 함께 노를 저어 가자

권영환 편집국장

재부 감정공중친회 제56차 정기총회

2024년 안동권씨 재부 감정공중친회 정기총회가 3월 23일 저녁, 부산 전포동 신우빌딩 부산중친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제56차 총회에는 총회 원로와 해광(정수)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산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해광(정수) 회장은 참석 인사 소개에 이은 인사말에서 지난 재임 6년 동안 회고하고, 총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하다며 보다 더 훌륭한 분을 회장으로 선출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송암(성용) 중친회 명예회장이 나와 "부산중친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감정공중친회가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였으며, 송계(길상) 고문은 격려사를 통하여 부산중친회의 뿌리가 된 감정공중친회의 내력을 세세히 설명한 뒤에 "모두가 한 집안인 우리끼리 화합하고 단결하여 감정공중친회를 계속 잘 이끌



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계속된 총회는 경과보고, 감사 보고에 이어 지난 회기 결산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친 다음 임원 선출에 들어가 회장은 1년 유임으로 결정되고, 부회장은 쌍희(서령공), 재식(삼과당 유임), 춘식(사직공), 우진(잠봉공) 등 각 계파별 1인씩을 선정하였다. 또한 감사에는 임호, 총무에는 채영 죽전을 선정하고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회의 뒤에는 만찬과 함께 일가 간에 정담을 주고받고, 서로 약속을 권하며 우애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영



6.10만세 항쟁 주역 항일구국열사

권오설(權五高) 선생 제94주기 묘소 참배

지난 4월 17일은 일제강점기 6.10만세 항쟁의 주역인 막난(莫難) 권오설(權五高) 선생이 1930년 감허있던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신 94주기 되는 날이었다.

이날을 맞이하여 권오설·권오상 기념사업회 설립 준비 위원회(위원장 이준식)와 6.10만세 운동 유족회(상인대표 황선건) 그리고 두 분 열사(권오설, 권오상)의 유족 및 종중(宗中) 관계자들이 권오설 선생의 고향

마을인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가일마을)에 있는 묘소를 참배하고 선생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추모하였다.

참배 후에는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을 예방하고 기념사업회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가일마을은 2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으며 특히 6.10만세 항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오설(權五高, 1897-1930) 선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



한 당시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이던 권오상(權五尙, 1900-1928)과 중앙고보에 재학 중이던 권오운(權五雲, 1904-1927)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옥고(獄苦)를 치르고 요절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37세 권순갑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수용 대총회 부회장(작은공파 38세)

6) 문화사관

이것은 스펙클러, 토인비의 문화사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한 국가나 민족의 역사 같은 것은 문명권의 단편에 불과하여서 역사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전체적인 문화권을 역사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스펙클러는 모든 문명이 발생·쇠퇴-멸망이라는 일정한 불변의 법칙을 따른다는 결정론을 세운 데 반해서, 토인비는 한

문명이 흥했다가 망하는 것은 발생, 성장, 좌절, 해체, 사(死)의 단계를 거치지만 이 과정은 결정론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역사의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의지론) 토인비에 의하면 역사 이래로 20개의 문명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접촉하면서 역사를 꾸며 오는 동안 많은 문명이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기독교 문명권, 회회교 문화권, 인도 문화권, 극동문화권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오늘날 서구 문명은 좌절기의 종말에 들어서 있지만 지도자들이 다시 각성하면서 책임을 다하면 이 문명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깨우치고 있다. 그러나 토인비의 역사관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찬 확신이 없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관에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법칙을 생물학적인 법칙으로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법칙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역사관의 기본 입장

1) 좌익사 통일원리는 역사를 인간의 타락으로 빛어낸 좌익사라고 보고 있다. 인류 역사가 전쟁과 고통과 참상들로 점철된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류 역사가 정상적인(또는 원리적인) 역사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좌익사로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안동권씨 대총회 장학금 구좌 모집 안내

안동권씨 대총회에서는 매년 자라나는 우수한 후학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능동장학회와 더불어 뜻있는 개인이나 문중 및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구좌를 후원받아 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보다 많은 후손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축전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구좌 신청 : 대총회 사무처 02-2695-2483~4
- 신청 일시 : 2024년 2월 1일 ~
- 후원 금액 : 1구좌당 100만원(해당 장학금 수여는 후원자 명의로 지급)
- 지급 시기 : 5월 정기총회 시
- 계좌번호 : 농협 301-0343-6793-41 예금주 :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 ※ 특히 장학금 구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문중 및 기업체는 장학기념비 설립 시 그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 영원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후원 내역(4월 26일 현재)

- <24.3.06> 권경환(상주) 100만원
- <24.3.12> 권영창 대총회장 1,000만원
- <24.3.17> 권무탁 부회장(대영교육재단 이사장) 100만원
- <24.3.18> 권재혁 고문(연성대학교 이사장) 100만원
- <24.3.21> 권태복 상임위원(전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100만원
- <24.3.22> 권봉도(능동장학회 감사, 현대통상 대표이사) 100만원
- <24.3.25> 권정선(능동장학회 이사) 100만원
- <24.4.02> 권정택(검교공파총회장) 100만원
- <24.4.24> 권중석(시중공파, 임대사업) 100만원

합계 : 18,0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 대총회

서울지역중친회 유적지 순례 안내

회원 여러분!

이 달에는 유서깊은 경주 윤곡서원으로 유적지 순례를 갑니다. 윤곡서원은 시조 태사공의 공적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유림이 1784년(정조8년) 창건한 서원으로, 시조 태사공을 주벽으로 모시고 죽림공과 귀봉공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 시 : 2024년 5월 12일, 일요일, 7시30분
- ♣ 견학 및 참배 : 경주 윤곡서원
- ♣ 집합 장소 : 사당역 6번 출구
- ◆ 연락처 : 회장 권영복 010-2456-6865
- 총무 권경택 010-3796-4047

2024년 5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중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37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4년 5월 19일 10시(시간엄수)
- ♣ 집합장소 :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 ♣ 산행지 : 우면산 둘레길 사당역 하산
- ♣ 준비물 : 도시락, 간식, 개인필요장비
- 회 장 권영복 : 010-2456-6865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4년 5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영복